



오록도 행복 칼럼

김동근 소설가

기해년(己亥年)이 지고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해가 가고 다시 떠오르는 것이 우주 삼라 만상의 이치이나 세밀 심상은 사뭇 무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또 한 살 먹는구나! 나이에처럼 인생의 한 켠이 둘러집이 두렵기까지 하다.

여느 해 다 그러했겠지만 올해가 더욱 사무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일까? 과거는 이미 시들어 버렸고 미래는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 이 맘 때면 우리는 항상 다짐을 한다. 지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래서인지 주역, 운수, 사주, 비결

을 찾아 새해의 기운을 알아보기에 망설이지 않는다.

개인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도 나름 삶의 신수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것이 이 시점이다. 사회라는 큰 울타리에서도 한해의 귀감이 될 만한 문구를 공표하며 새해맞이에 결기를 내보이는 것이다.

교수들이 뽑은 2019년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 불가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몸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가 있었다.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잘 살 것 같이 생각한 한 쪽 머리가 독을 타서 다른 쪽을 죽였다. 하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모두 죽고 만다는 뜻의 공명지조. 정치권이 서로 나누어

‘공명지조’의 가르침

(共命之鳥)

싸우는 것을 넘어 국민들까지 편싸움에 동조해 분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대학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47명(33%)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뽑았다고 밝혔다.

불교경전인 「아미타경」, 「불보행집경」과 「잡보잡경」을 보면, 이 새의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쫓겨 먹었는데, 이에 질투심을 느낀 다른 머리가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여버렸다. 공동운명체인 두 머리는 결국 모두 죽게 됐다는 이야기다.

내년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

차’ 110년이 되는 해이다. 한때의 잘못이 무려 100년이 넘도록 미래에 후유증을 남긴다.

불가에서는 세상의 현상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한다. 현재의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는 자신이 지은 나쁜 인연이 있었기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미래의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현재에 그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다가오기 마련이다. 지금은 운 좋게 비바람을 피했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다. 비바람은 언제고 다시 몰아친다. 나쁜 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다시 오는 비바람에 그 씨앗이 트게 되어있는 것이다.

세밀과 원단에 우리는 혹시 공동체를 망각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자. 분열된 우리사회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일은 서로를 배려하는 일일 것이다. 굳이 대학교수들의 생각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익힌 사실이다. 초등학교도 다 아는 사실을 새삼, 우리는 다시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현재의 안락한 삶을 위해 나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이미 심었다면 첫 해가 본격 떠오르기 전에 그 씨앗을 파내어야 할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안락한 삶을 위해 나라를 빼앗기는 정도의 우를 저지르게 된다면 또다시 100년이 넘는 고단한 삶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4년을 이끌고 갈 우리시대의 현자를 뽑는 일이다. 우매한 국민이 무능한 정치인을 양산한다. 두 눈 부릅뜨고 이 땅에 좋은 복의 씨앗을 심기 바란다.

〈오록도문학상 수상자 작품〉

대상

화목한 가정

현종식

화목한 가정은 가족의 보금자리 그 곳에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불만은 없다 오직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있을 뿐

우리 집 거실에 가훈 하나 걸려있다
일 년 전 식도암으로 생사의 바닷을 넘나들 때
네 자녀의 지성으로 암을 잠재우고 깨어났다

떠나지 않는 암과는 마음 편한 친구로 지내며
꽃 피고 새 우는 어머니의 고향땅에서 살련다
내일이 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웃으며 가고 싶다



본상

언어를 꿈꾸는 사람들

권미숙

저녁놀 속으로 낙엽 지듯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요양원에 주인 찾는 분실물처럼
햇살 드는 의자에 모여 앉아
조점 잃은 눈빛으로 이방인을 바라본다
양지 바른 창가로 나간 차메노인
기댈 곳 없는 창백한 얼굴로
초겨울 창문 너머
희미해진 동네를 하릴없이 배회한다
저마다 수위 넘치는
굴곡 깊은 사연 잊으려
기억이 정전 되었을까
언젠가는 햇살의 무게 견디지 못해
빈집처럼 허물어져
귀향을 꿈꾸는 노인들
해질녘 골목길 끝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 따라
청춘의 뒤통에 걸린 자화상과
도둑대고 있다.

작가상

5월과 6월 사이

정마린

생명의 탄생과 결핍에 꽃이 피고 졌다
그의 젊음이 멈춰버린 날
총부리에 펴고 사람에 질식당했다
가족이 있어도 그의 의식을 되돌릴 수 없었다

긴 침묵과의 사투
장미가시에 찔리듯 수술대 위에서의 후유증은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무언의 눈물을 보았다

아이의 행동이었다가
폭군이 되었다가
길거리의 거지가 되었다가
결핍의 환영을 불렀다가
……
돌볼 수 없는 한계는
그를 정신병원으로 내 몰았고

창살에 갇혀 지내길 40여년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도 못 해보고
군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다
젊음의 뇌는 멈춰 버렸고

방관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재촉하였다
지뢰밭 같은 세월
장기도 못 가보고 만 62세의 나이
꿈조차 꾸길 거부당했다

중결의 신희란 쓰야야 하지만
꼬여버린 실타래 다 풀지 못해
아직 가시 숲을 걷고 있을 그대여
이젠
맑은 정신의 수호자가 되소서.

신인상

예민(銳敏)

강정웅

울 엄마는 말했지
예민한 거야
생각을 조각내지 마

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데
모두 날 예민하다 말하지
하για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점 하나 더 찍으면 무늬가 될 것을
점 하나 지우려다 얼룩이 되었잖아

오늘도 난 잠을 설친다.
생각을 조각내면서

도시 해안가 낚시 전면금지해야

사람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까운 산이든 멀리있는 산이든 등산을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지켜야하는 필수 규칙이 있습니다. 성냥이나 라이터 가스버너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런 법을 제정 하였을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산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바다를 생각 해 봅시다. 특히 부산은 바다를 접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즐기는 곳입니다 도시근교 바닷가는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이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환경입니다 도시의 해안은

낚시를 금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해안의 강태공들은 바다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위험한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분들. 해안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의 버리고 간 낚시 소품과 쓰레기는 해안의 환경을 더럽히고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등산의 지침이 있는 것과 같이 어느 누구라도 도시해안에서는 낚시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단속을 해 기본적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찾기를 바랍니다. 낚시를 꼭 해야하는 분들은 해안 도시를 떠나 작은 섬 같은 곳에서 낚시를 즐겨야 합니다. **예관희** (지구환경보존운동본부 사무총장 .맨홀 빛물받이 개발자)

횡단보도의 ‘소확행’

요즈음 나는 우리 동네 큰길을 건널 때 예전 같이 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건너다닌다. 왜냐하면 용당동 새마을 금고 앞에 하얀 횡단보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횡단보도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한다. 이제서야 마음 놓고 길을 건너 버스 정류

소에서 버스를 탈수 있게 되었다. 정말 적시적소에 만들어졌다. 예전에는 건너 할 것 없이 무단횡단을 할 때 정말 아찔했는데 불안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 날 거라 믿는다. 횡단보도를 놓아준 관계자분들에게 용당동 주민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배종국(용당동)

신인상

못

진정남

애당초 못은 단단한 철이었다. 사람들이 철을 길게 혹은 짧게 못으로 성형시켜 버렸다. 못은 다른 물체를 곱씹히는 존재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체와 연결시키는 가고 역할을 해야 한다. 서로 떨어진 물체를 이어주려 어느 쪽이든 망치에 두들겨 맞으며 쫓겨서 나무 속에 들어가고 드릴에 떠밀려 벽 속에 숨어 살아야 한다.

이래저래 못의 삶도 평탄한 삶은 아닌 것 같다. 숨을 쉴 수 없는 영혼들의 들숨으로 살아가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생명수가 태어나던 날 산화되어 버리는 그 산소를 안아 보고 싶은데 이미 내 몸은 발경계 붉은 망이 들어 버렸다. 삭고 힘 없어 부서져 버린다.

못은 그 옛날 어른들이 여러 가지 곡식을 말릴 때 쓰임을 받는 살평상을 만들 때나 피곤한 이를 얹히기 위해 의자를 만들 때도 감초 역할을 단단히 했었다. 대나무를 쪼개서 엮어 만드는 살평상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기도 했다. 지금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빌딩을 짓느라 못의 쓰임새 또한 줄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해서 그 무료함을 달래 보려 목조 건물의 철거된 무리 속에 갇혀 있다가 파란 하늘, 빛을 향한 그리움에 빠져 이 고개를 내밀어 보지만 사정없이 노루발장도로로 쫓여 버려 비참한 신세가 되곤 한다. 그게 무서웠다. 질리도록 벽에 박혀서, 박힌 아픔과 아무렇지도 않게 모

든 것이 뒤섞여서 융합되는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함인가? 질리도록 무서웠던 것이.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힐 지경인 좁은 공간에서 탈출시키려는 것인지….

사는 일은 판 생명을 먹는 일이고 죽는 일은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되는 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얽히고설킨 가운데 장도리로 때리고 두드릴수록 자신은 망가지지만 다른 상대 물체는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해짐을 안다. 못은 갑갑한 적막 속에 송곳같이 머리를 디밀고 우주의 기운을 들이마시면서 깃을 풀고 있다. 해묵어 세월이 흐르면 단순한 못이 아닌 반짝이며 광채 흐르는 보석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뒷동산 공원 옆에 자리한 나무 의자는 언제나 비어있을 틈이 없다. 바로 옆 철제의자는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운데, 다만 붉은 녹물이 친구 하자며 앉아 있을 뿐이다. 연인을 기다리다 지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나무 의자를 못이 버팀목이 되어 지키고 있다. 그곳에 햇살이 따사로이 내리쬐니 사람들이 더욱더 북적거린다.

책을 보는 사람, 전화기를 만지는 사람, 연인끼리 속삭임을 나누는 사람, 어떤 이는 책을 몇 장 읽다 지쳤는지 하품을 하며 자리를 뜬다. 하품이 전염 됐는지 옆 사람의 입에서도 계속 하품이 새어나온다. 한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 커피자판기 앞에서 동전 몇 개를 커피와 바꾼다. 의자에 걸터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공짜로 구경한다. 지칠 대로 지쳐서 찾아와 꾸넌하는 이의 모습도 텅으로 읽는다. 흥에 겨워 노래하며 지나가는 이의 노래

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가슴 가득 행복을 주워 담기에 바쁘다. 행복을 너무 많이 담은 탓일까. 사실 자신이 산화돼 발경계 붉은 망이 들어 버린 거지만 포만감에 자신의 힘으로 지탱했던 의자가 중심을 잃고 뿌리직하고 소리 내며 넘어지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기억의 저 깊은 곳에서 검은 외침이 들려왔다. 그것은 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과정에 어두운 그림자 한 둘은 끌여안고 있나보다. 어느새 가지에는 여기저기 몇 개 남아 있는 색 바랜 나뭇잎조차 바람이 불 때마다 허망하게 몸을 흔들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의자와 내가 갈라고 있던 시간의 틈새가 이렇게 잔혹하게 다가올 줄이야. 아뵤 정도로 차갑고 팽팽하게 느껴지는 공기와 함께 나무속에 융화돼 버린다. 그러고는 순간 그 자리에서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 주위에서 조용한 적막을 깨는 소리에 온 몸에서 힘이 빠져 나감을 느끼며 잠이 깼다. 궁급하다. 분명 사람들의 목소리였는데, 여럿이 웅성거리는 소리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을 이유 없이 죽임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평탄하게 지내고 싶을 따름이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보다 힘이 세어도, 혹 힘이 약해도 상대를 곱씹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휘어지고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남의 힘 빌지 않으면서 말이다. 나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을까.

못이란 존재는 다른 물체와 공유할 때 어우러질 때 값어치가 있는 거다. 사실 못끼리 있을 땐 그다지 중요함을 느끼지 못한다. 못은 자신이 나무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게 웬지 서글프고 허전한 모양새다. 나무 역시 저 자신 홀로 쫓겨하게 서서 자라야 하는데 버팀목 속의 못을 생각하니 수치심과 굴욕감에 차라리 죽어가길 바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걸 어렵듯이나마 나 자신은 알 것 같다. 다만 알고 있어도 그것을 글이나 말로 나타낼 도리는 없지만, 끝까지 다들 어지르지 못하고 털 익은 풋사과처럼 많이 부숙하라는 것도 서글프고 허전하다. 그래서 그냥 단단한 철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는 못이라면 더더욱 좋을 따름이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비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는 꿈을 꾸어본다. 탈출구를 찾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싶어서.



산따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20. 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1.12.(일)	호미곶 둘레길	010-8565-8359
	하나로산악회	1.1.(수)	덕구온천, 열두계곡	010-3837-6206
용호동	용신산악회	1.12.(일)	전남장성 방장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5.(일)	소백산 자락길	010-8008-2087
	21세기산악회	1.12.(일)	거창 남덕유산	010-7563-1943
용당동	용마산악회	1.12.(일)	남해바래길 4코스 섬노래길	010-2692-1170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1.12.(일)	백암산 백암온천	010-2902-8322
	문사산악회	1.12.(일)	충남 공주 공산성	010-8466-8662
	산누리산악회	1.5.(일)	지리산 둘레길 3코스	010-4035-3432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